

이중섭거리 명동로 상권 부활하나

중소벤처부 ‘상권활성화사업’ 선정… 5년간 100억 투입
웰컴센터 구축·빈 점포 활성화·로컬푸드마켓 등 운영
서귀포시, 135m 구간 특정 요일 ‘차없는 거리’ 추진 중

상권 침체가 심각한 서귀포시 이중섭거리 명동로 일대에서 앞으로 5년 간 상권활성화사업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가 이중섭거리 일대에서 문화관광도시 사업으로 추진 중인 차없는 거리 조성과 맞물려 일대가 문화예술 상권으로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귀포시는 이중섭거리 명동로 일대가 29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6년 상권활성화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상권활성화사업은 낙후된 지역 상권을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 5년간 최대 100억원을 투입해 침체된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이중섭거리 명동로 일대는 서귀포시 원도심의 중심축으로, 서귀포시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관광지였으나 지금은 관광객 감소와 공실률

증가 등으로 침체를 겪고 있다.

시는 이번 상권활성화사업 선정으로 ▷웰컴센터 구축 ▷빈 점포 활성화 사업 ▷1점포 2사업자, 공간 이모작 사업 ▷지역 밀착형 로컬푸드마켓 운영 ▷폭포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테마존 조성 ▷제주도 예술인 작품을 테마로 한 디자인거리 조성 등 지역 특화자원과 장점을 활용한 지역맞춤형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상권활성화 예비사업인 2025년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 공모 선정으로 확보된 사업비 1억원을 활용해 상권활성화 전략 체계를 공고해 해 사업 추진에 내실을 다질 계획이다.

시는 상권활성화사업을 위해 지난 2월 주민설명회를 열어 지역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3월 정방동상가변영회를 주축으로 주관기

관인 (주)학산경영법인과 함께 지역 상인·건물주·토지주가 힘을 합쳐 서귀포시 자율상권협동조합 설립을 승인해 지역민 중심으로 상권을 관리하고 이끌어가는 체계를 마련했다. 이어 지난달 7일 상권활성화사업 사업을 신청하고 서류·현장 평가를 거쳐 제주도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도 신청사업으로 선정해 중소벤처기업부 선정협의회 평가 결과 최종 대상지로 선정됐다.

한편 서귀포시는 명동로~이중섭거리 135m 구간에 대해 특정 요일과 시간대에 차없는 거리(보행자 전용길) 조성을 추진 중이다. 지난 3월 1차 주민설명회에 이어 6월까지 추가 설명회를 거쳐 보행자 전용길로 고시·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보행자 전용길이 조성되면 7월쯤부터 60회에 걸쳐 청소년동아리·문화예술단체·도립예술단이 참여하는 원도심 페스티벌과 단체·동아리를 대상으로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주민과 함께 하는 버스킹 등을 준비하고 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스마트 농업 기술 노지 작물 지원 집중돼야”

김화년 제주대 교수, 기후변화 대응 방안 연구
재해보험 가입률 확대 위한 제도 개선도 강조

하우스 시설에 우선 도입하는 스마트 농업 기술을 앞으로는 노지 작물 생산을 지원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화년 제주대학교 산업응용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제주연구원이 분야별 연구 결과를 단행본으로 묶은 ‘제주의 미래를 보다’에 실린 ‘기후변화에 대응한 제주 농업의 새로운 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이 연구에서 “기후위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가 소득의 안정을 위해 농민과 농정 담당자들이 기후변화를 피할 수 없는 조건으로 인식하고 적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주의 현실에 필요한 노지 스마트 농업 도입 집중과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정책을 중점적으로 제안했다

그는 우선 국내 스마트농업 기술이 이미 자연 조건을 어느 정도 통제하고 있는 하우스 시설에 접목시키는데 집중되어 있는 점을 짚었다. 김 교수는 “스마트 농업 기술은 자연환경에 그대로 노출된 노지에서 더욱 필요한 기술로 미국에서는 밀, 옥수수 등 대량 생산하는 노지 작물에 대해 스마트 농업 기술을 적용해 생산하는 것이 보편화됐다”며 “제주에는 노지 감귤, 노지 채소류가 주요 작물이기 때문에 스마트 농업 기술로 기상 변화를 예측해 농업 생산에 적용하는 것은 기후변화 적응에 필수적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농작물 재해보험의 경우엔 기후

변화로 인한 농업 소득 감소의 위험을 낮추는 마지막 안전 장치라고 했다. 김 교수는 “최근 극심한 가뭄, 이상 고온 등 기상 이변의 빈도와 규모가 증가해 농작물 재해보험의 필요성이 커졌다. 그러나 제주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저조하다”며 대책을 제시했다. 그는 손해율(피해율) 산정에 대한 농민의 불신 등을 재해보험 가입률 하락 원인으로 꼽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생육 조건 변화에 따라 가입 대상 품목별로 가입 시기와 보장 기간의 조정, 보상 조건의 변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연구원의 ‘미래를 보다’는 인구 100만 시대를 대비하는 제주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 성과를 모은 것이다. ‘제주의 인구와 주민의 삶의 질’, ‘기후위기와 기후테크 녹색산업, 제주의 전략’ 등 20여 편이 실렸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제주 추억 남기는 관광객들 맑은 날씨를 보인 30일 서귀포시 오설록을 찾은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기고 있다. 강희만기자

동호회원 각출 파크골프장 보수공사 논란

회천구장 잔디식재 등 진행… “공공시설인데 말 안돼” vs “회원들 자발적”

2일 재개장을 앞둔 제주도 회천 파크골프장 보수공사를 동호회 회원들이 각출한 성금으로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시는 파크골프 수요가 급증하자 지난해 18홀 규모의 회천 파크골프장을 36홀로 규모로 증설·재개장했다. 하지만 증설공사 설계과정에서 물도랑, 장애인용 위한 시설 등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만이 쏟아지자 파크골프발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휴장기간 8000만원을 들여 재정비를 진행했지만 이마저도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았다.

특히 전국대회 개최를 앞두고 잔디 식재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회원들이 동호회별로 1인당 4000원씩 성금형태로 각출, 잔디 2만

5000여장을 추가로 식재했다.

이에 대해 일부 회원들은 제주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 보수공사를 회원들이 각출한 돈으로 진행하는 형태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모 회원은 “아무리 이용자들의 편의와 전국대회 개최를 준비하는 차원이지만 공공시설 보수공사를 이용자들이 각출한 돈으로 진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파크골프 발전위원회를 맡고 있는 C씨는 “제주시는 보수예산이 없다고 하고 재개장과 함께 대회 준비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파크골프협회 차원에서 십시일반 모아 미흡한 부분을 보수하자는 뜻이 모아져 진행한 것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시 관계자도 “추가 보수예산

을 확보할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얘기를 했지만 협회 차원에서 대회 개최 등을 위해 진행하겠다고 말하고 자체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한편 파크골프는 ‘공원에서 치는 골프’로 공원과 같은 소규모 공간에서 즐기는 골프와 게이트볼을 융합한 생활 스포츠로 일반 골프와 달리 1개의 채와 1개의 공을 활용하는 특징이다.

도내에는 뱃초트파크 제주를 포함해 11곳의 파크골프장이 조성된 상태로 동호회 인구가 급증하면서 제주도는 추가로 골프장을 조성하고 있다. 36홀 규모의 회천파크골프장에 대해서는 클럽하우스를 설치해 국내외 대회가 가능하도록 공인도 받을 계획이다.

위영식기자

새섬공원 정비 위해 5월 7~13일 출입 통제

서귀포시는 서귀포항 인근에 위치한 새섬공원 내 주요 편의시설과 경관 개선 공사를 위해 오는 7일부터 13일까지 출입을 통제한다고 30일 밝혔다. 통제 구간은 새연교를 지나 광장에서 새섬 산책로로 연결

되는 계단 구역부터다.

새섬공원은 서귀포 해양도립공원과 새연교와 인접해 시민과 관광객이 즐겨찾는 명소다. 하지만 산책로 시설의 노후화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고, 전망대의 수목이

우거져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총 사업비 4000만원을 투입해 산책로 150m 구간에 야자매트를 설치하고 전망대에 우거진 수목을 정비해 조망권을 확보한다. 또 재래동백을 심어 포토존도 조성해 공원을 찾는 이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문미숙기자

그룹 제이엠신용정보

빌려주고 못받은돈, 외상대금 등을 돌려받는 일은 제이엠에 맡겨주세요!!

‘한국씨티은행’ 자회사인 ‘씨티크레딧서비스’의 새이름

- 업계 최상 신용조회, 부동산조회 서비스
- 경력이 풍부한 추심직원의 신속한 회수
- 전국 40개 지점망을 연계한 최고의 회수율
- 2022년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부문 대상 수상

대상 채권

상사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외상대금, 투자금 등
민사채권 : 판결문, 공정증서 등 받고 미해결된 개인간의 대여금
금융채권 : 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대금 등
채권매입상담 : 금융채권 매도 상담(매입제휴처 연계)

제이엠신용정보 제주지사

무료상담 ☎ 064)702-0500

* 직원모집 : 영업전문직, 추심전문직을 상시 모집합니다.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 부문
2022년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대賞

국립종자원 인증'무병묘'생산업체

< 무병묘 >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묘목
2025년 무병묘 예약 받습니다.
정부지원금 최대 3,000원 지원
인증서가 있는 것만 무병묘입니다.

< 도내 / 국내육성품종 >

도내육성: 우리향 / 달코미 / 레드스타 / 맛나봉
국내육성: 미래향 / 사라향 / 윈터프린스 / 등등
도내 육성 품종은 제주도에서만 재배 가능합니다.
위 품종들은 통상실시 완료된 업체에서만 판매 가능합니다.

< 포트묘 >

도내 최대 <포트묘> 생산
천혜향 / 레드향 / 한라봉 / 카라향 / 황금향 / 하갈 / 팔삭 / 자몽 / 레몬 / 외 다수 품종

2025년 예약 중 무병묘 / 포트묘 보조사업 가능

종자입등록번호 제18-제주-2022-20-02
제주시 조천읍 북선로100-29 / 조천읍 선흘리 3083, 2995-3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 무병묘 인증업체, 통상실시 완료업체

☎ 010-4450-4316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